

“와! 성공이다” 우주로 퍼진 고흥의 환호



28일 오후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고흥우주발사전망대에서 관람객들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시험발사를 지켜보고 있다.

/고흥=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르포-누리호 시험발사 현장을 가다

28일 오후 4시10분 고흥우주발사전망대(고흥군 영남면 남열리)에 모인 500여 명의 인파 사이에서 일제히 환성이 쏟아졌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엔진의 시험발사가 성공한 순간이었다.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직선으로 15km 떨어진 이곳은 발사 시각(오후 4시)을 2시간 앞두고 전국에서 방문한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총 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전망대 꼭대기층(7층·50m 높이)은 일찌감치 만석이 되는 등 전망대 입장권은 230개가 팔렸다.

1층 야외에도 200여명 이상이 모여 우주센터를 바라봤다.

우주발사전망대 관람객 북적 긴장감 속 성공 기원 한마음 우주산업 강국 비상 계기로 “4년뒤 발사 때 꼭 다시 올 것”

발사시각이 가까워지자 일부 우주 마니아들은 스톱워치를 켜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 전망대 7층은 천천히 회전하는 탓에 일부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도 벌였다.

오후 4시 정각이 되자 바다 건너에서 섬광이 보이기 시작했다. 섬광을 발견한 관람객들 사이에선 환호가 터져나왔다. 긴 하얀 연기를 남기며 지그재그로 날아

가던 발사체는 위로 올라갈수록 수직 방향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발사 1분이 지나자 굉음도 들렸다.

관람객들은 다함께 “1초, 2초, 3초...”라고 세며 발사 성공을 기원했다.

눈에서 보인 지 2분 뒤 발사체는 구름 사이로 몸을 숨기며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스톱워치가 멈춘 시간은 120초. 사람들은 성공한 것 같다고 자체 평가했고 언론을 통해 우주센터에서 성공했다는 공식 발표를 듣자 환호했다.

로켓 엔지니어가 꿈이라는 김민수(14·광주시 북구 일곡동)군은 “이번 발사를 보기 위해 학교를 하루 빠지고 아버지와 함께 왔다”며 “4년 뒤 있을 발사에도 꼭 다시 와서 지켜보겠다. 몇십년 뒤에는 우주센터

안에서 로켓을 직접 제어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원에서 왔다는 김종의(77)·윤재길(여·75) 부부는 “이번 생에서 한국형발사체의 이륙을 언제 또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라 직접 차를 운전해 고흥으로 왔다”면서 “성공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뛰었다”며 활짝 웃었다.

이경준(62·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그동안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했 것 같다”며 “이번에 발사 성공을 계기로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한국이 우주산업 강국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고흥=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5·18 성폭력 정당화 시도

“광주 시민 보호하려 계엄군 투입” 꾀변도

김병기 의원, 보안사문건 공개

5·18 유혈진압에 앞장섰던 신군부 장성이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18 당시 광주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광주시민 보호 차원이라는 꾀변을 늘어놓았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옛 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하 보안사)가 1988년과 1990년에 작성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건 2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보안사의 ‘대상자 접촉 보고’에 따르면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보안사는 계엄군의 광주투입과 5·18 과정에서 성폭력·성폭행을 정당화했다. 이 문건은 보안사가 5·18 당시 육군 작전 참모부장(작참부장)이었던 김재명 전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을 1988년 2월 8일 인터뷰해 작성한 것이다.

각하다 새벽 3-4시에 세밀한 계획 하에 작전을 개시해 2시간 만에 진압됐다. 이때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인터뷰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광주 시민과 옹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옹호하기 위한 자료로, 성추행·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1988년 5공 비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신군부측에 유리하도록 사전 작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이 함께 공개한 ‘5·18 행불자인정자 가족회 해체 유도’ (610보안부대)에 따르면 610보안부대는 1990년 2월 26일부터 4월 18일까지 5·18 강경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5·18 추가 신고 행불자 가족회’ 와해 사업도 추진했다.

610보안부대 소속 박도준위 등이 직접 나서 “강경단체 일부 임원진이 (5·18 단체를) 개인 출세를 위한 기반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회원들을 회유했고 결국 이 단체는 해체돼 유족단체로 흡수·통합됐다.

610보안부대는 기무사 610부대의 전신으로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도체육관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과 안산 단원고 학생까지 전방위로 불법 사찰한 사실이 최근 국방부 특별수사단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부마사태 전에는 여자들이 사진에 찍힐까봐 나오지도 않다가 부마사태 후는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 군인들이 장피를 주기 위한 행위를 했는지 모르지만 강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일부 비란의 소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적인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병력을 투입한 것도 광주 시민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대해) 작전개시 시간도 야간에 하느냐, 주간에 하느냐를 생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나 대신 조타기 잡아라” 술 취해 운항 지시한 선장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원에게 선박 운항을 지시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청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북쪽 370여m 해상에서 선원 B(59)씨에게 9.7t급 조개잡이 어선 운항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상에서 점심 식사 도중 선원들과 술을 나눠마시고, 술을 마시지 않은 B씨에게 운항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 순찰 중이던 해경은 이 어선을 검문하다가 “선장 지시로 배를 운항했다”는 B씨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형사처분 대상이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호남 비하 홍보물’ 도로공사 “사과합니다”

고속도로 미남통행료 납부 안내 홍보물에서 호남지역을 비하했다는 보도(광주일보 2018년 11월 28일자 6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가 광주·전남·북지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8일 광주일보에 “부산경남본부에서 사투리로 제작한 만화가 본의 아니게 호남지역을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노력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도로공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홈페이지(www.ex.co.kr)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도로공사는 사과문에서 “공사 부산경남본부에서 미남통행료 납부 안내를 위해 사투리로 제작한 만화 홍보물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며 “논란이 된 홍보물은 회수·폐기했

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홍보캐릭터인 ‘길통이’와 ‘차로차로’가 등장하는 ‘미남통행료 홍보여행’ 홍보물을 300여장 제작해 지난 7월 부산·경남을 지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영업소에 배치했으며, 호남 비하 발언 등이 포함된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홍보물에는 운전자 캐릭터인 ‘길통이’가 “고속도로 미남통행료 있다고 연락 와부러 당께” 등 호남 사투리로 말하자 또 다른 캐릭터인 ‘차로차로’가 “뭐라카노. 통행료 제 때 안 내면 어찌 되는 줄 아나. 니와 그리 무식하노?” 등 영남 사투리로 꾸짖는 내용이 실려있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가로수·신호등·전봇대 ‘황황’ 차 버리고 뺑소니 30대 입건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청은 28일 A(3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밤 10시 50분께 광산구 비아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길옆 가로수와 신호등, 전봇대와 부딪혔다. 현장에 차를 버려두고 집으로 달아난 A씨는 자적조회를 통해 찾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5%가 나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서 도색작업 이동하던 60대 열차에 치여 숨져

28일 오전 9시 13분께 광주 광산구 호남선 남암역 인근에서 김모(66)씨가 서울행 새마을호 열차에 치였다.

김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도색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이날 인부 2명을 데리고 선로

전환기 단차함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작업을 했다. 작업을 마친 김씨는 달리는 열차를 등지고 이른날 작업할 장소를 미리 둘러보러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

“콘서트 입장권 싸게 팔아요” 수백만원 가로챈 10대 철창형

○··인기가수 콘서트 입장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10대 청소년이 철창형

○··28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18)군은 지난 9월 12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유, HOT 등의 공연 입장권을 웃돈 없이 정가에 판다’ 등 허위 게시글을 올려 B(여

·24)씨 등 23명으로부터 297만원을 받아 잠적했다는 것.

○··A군은 공연 입장권(1매당 평균 12만원)이 중고거래사이트에서 2-3배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A군이 총 55명에게 입장권 사기를 쳤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 /김용희 기자 kimyh@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6
	한국어교육학과	1
	유아교육과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아동발달교육심리 전공)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7

※신학과는 구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2019. 1. 10(목)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석사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국제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신학대학원 (매주) · 원서접수: 2018. 11. 20(화) ~ 11. 28(수)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매주)
 · 원서접수: 2018. 12. 3(월) ~ 12. 12(수)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